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한 지 민¹⁾

최 훈 석[†]

2020년 9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 시기에 국내 거주 성인(N = 445)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규범을 강하게 지각했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매개경로가 유의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개인적 취약성에 관계없이 관찰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행동면역,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 및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집단주의 성향, 사회적 거리두기, 주관적 규범

1)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했으며, 한국 정부도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년 3월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조치를 전면 시행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외출 자제 등의 수칙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시기에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병균의 전파를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통제에 효과성이 큰 행동면역 전략이다(Greenstone & Nigam, 2020; Jefferson et al., 2011; Pan et al., 2020). 실제로 한국 질병관리본부(2020)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2020)는 예방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개인 위생관리 이외에 코로나19를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뿐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정도에서 개인, 집단이나 사회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거나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Im & Chen, 2020; Thu, Ngoc, & Hai,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iddlestone, Green, & Douglas, 2020; Van Bavel et al., 2020). 이 방면의 연구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위협 지각(예: Xie, Liang, Dulebenets, & Mei,

2020),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예: De Coroiu, Moran, Campbell, & Geller, 2020), 정부에 대한 신뢰(예: Coroiu et al., 2020), 음모론에 대한 믿음(예: Coroiu et al., 2020) 등과 같은 개인의 지각과 신념에 초점을 두거나, 개인주의-집단주의(예: Im & Chen, 2020), 문화적 엄격함(예: Gelfand et al., 2021), 불확실성 회피(예: Huynh, 2020) 등과 같은 국가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심리와 행동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적 본질에 관한 신념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전제(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하에, 이러한 신념을 연구하는 틀로 제시된 개인주의-집단주의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을 측정하고,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 시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확장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이 어떤 심리 기제를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행동면역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체계로 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Triandis, 1995). 심리학 분야에서는 Hofstede(1980)의 연구를 필두로 국가 수준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문화 차원들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고(참조: Berry, Poortinga,

Pandey, Segall, & Kâğıtçıbaşı, 1997; Gelfand, Erez, & Aycan, 2007),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문화 차원이 개인주의-집단주의이다(Brewer & Chen, 2007; Oyserman et al., 2002). 전통적으로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서양 국가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그리고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된다(Hofstede, 2011).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체적 자기-지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규범이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허용적이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되고 공동의 성취 및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결체로서의 자기-지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비해서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Triandis & Gelfand, 2012).

이러한 두 문화의 특징을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시기에 개인주의-집단주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Murray, Trudeau, & Schaller, 2011). 특히,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인 공동 성취의 강조와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서 전염병 대처를 위한 권위체의 통제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관계체로서의 자기-지각에 수반되는 내/외집단 구분은 이방인이나 소수집단으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shdan & Steele, 2013; Fincher, Thornhill, Murray, & Schaller, 2008; Gelfand, Bhawuk, Nishi, & Bechtold, 2004). 이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창궐했던 지역

에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Fincher et al., 2008; Nikolaev, Boudreaux, & Salahodjaev, 2017; Thornhill, Fincher, Murray, & Schaller, 2010),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에 비해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었을 때 강한 면역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Brown, Ikeuchi, & Lucas, 2014)를 고려하면,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에 비해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행동면역체계를 추론할 수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국가, 조직, 집단, 개인 등 다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다(Brewer, 2006; Triandis, 1995). 전염병의 시기에 집단주의 문화가 효과적인 행동면역체계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일관되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규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가 높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Im과 Chen(2020)은 총 123개국 1만 4천여 명의 자료를 통해 각 나라에서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후 약 4개월간의 중단적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의 집단주의 점수(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와 사회적 거리두기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관찰하였다. 또한 Gelfand 등(2021)에 따르면, 엄격한 문화(tight culture)에 속한 국가들(예: 홍콩, 대만, 한국)이 느슨한 문화에 속한 국가들(예: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서 2020년 3월 21일부터 동년 4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개입전략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문화와 집단주의 간에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고려하면(Carpenter, 2000), 이 결과 역시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가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연구들에 더해서,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Biddlestone 등(2020)은 총 66개국에서 모집된 724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직/수평 개인주의-집단주의(Triandis & Gelfand, 1998)를 측정하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의도가 강했다. 이 연구 역시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간에 정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과 통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Pitlik & Rode, 2017).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실행되었음을 감안하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시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주의-집단주의가 국가 수준의 문화분류에

유용한 도구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 수준의 문화구분으로 개인의 심리와 행동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Oyserman et al., 2002).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생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일종의 지식 구조이며(Brewer, 2006; Hong, Morris, Chiu, & BenetMartínez, 2000), 개인이 수행하는 과업이나 상황맥락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활성화되는 상황인지적 특성을 지닌다(Oyserman & Lee, 2008). 따라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범주화된 특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얼마나 강하게 보유하고 실행하며 사는지는 개인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Green, Deschamps, & Páez, 2005; Oyserman, 2011; Taras, Steel, & Kirkman, 2016; Triandis, 199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처럼 바람직한 목표상태를 반영하는 가치에 관한 분석은 국가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Fischer, 2014; Schwartz, 201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인주의-집단주의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이 어떤 심리기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시기에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주관적 규범을 제안한다.

집단주의 성향, 주관적 규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계

주관적 규범은 중요 타인들이 해당 행동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지(예: ‘나의 주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와 그러한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한다(Ajzen, 1991; Fishbein, 1979). 주관적 규범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적 상황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촉진한다(Cialdini, 2001; Cialdini & Goldstein, 2004).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변수들 가운데 하나이며(Ajzen, 1991, 2001), 에이즈 관련 예방 행동(예: Greene, Hale, & Rubin, 1997), 당뇨병 예방 행동(예: Blue, 2007), 흡연(예: Finlay, Trafimow, & Jones, 1997; Finlay, Trafimow, & Moroi, 1999), 음주(예: 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유방암 자가 검진(예: Montano & Taplin, 1991)을 비롯한 다양한 단면의 건강 관련 행동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의 규범과 일관된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Triandis & Gelfand, 2012).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지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Trongmateerut와 Sweeney(2012)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태국인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미국인들에 비해서 내부고발 행동과 관련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보고했다. 주관적 규범의 행동 결정력이 개인주의에 비해 집단주의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예: Ahn, Koo, & Chang, 2012; Sreen, Purbey, & Sadarangani, 2018). 구체적인 예시로 친환경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에 비해서 친환경제품 구매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한 사적 자기(private self)를 활성화

화시키면 주관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태도가 행동 의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집합적 자기(collective self)를 활성화시키면 태도에 비해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Ybarra & Trafimow, 199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에 비해서 주관적 규범과 행동 의도 사이에 더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Bagozzi, Wong, Abe, & Bergami, 2000).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중요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준거집단을 참조하여 해당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 기준을 지각하고 그에 순응하려는 동기가 강함을 시사한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Triandis, 1995).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은 공동체 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동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중요 타인들의 규범적 압력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러한 압력에 순응하려는 동기가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타인의 기대에 민감하고 그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주관적 규범이라는 심리기제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매개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개인적 취약성을 탐색하였다. 질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경제적 취약성, 전반적 삶의 질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포함한다(Champion & Skinner, 2008; Van der Plicht, 1998). 서구에서 보고된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에는 주관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각된 취약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chmann, Zhao, Goldberg, & Reibling, 2003; Rogers, 1983). 예를 들어, Stasson과 Fishbein(1990)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벨트 착용 행동 의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 및 태도와 안전벨트 착용 의도 간의 관계는 교통사고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지각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또한 Gilles 등(2011)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임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을 다룬 서구의 선행연구(Makhanova & Shepherd, 2020)에서도 지각된 취약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의도와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예방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지각하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취약성이 낮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과 행동 간의 관계를 지각된 취약성이 조절한다는 추론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된 취약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실제로 Noar, Benac과 Harris(2007)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취약성에 초점을 둔 개입전략(예: “당신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 손을 잘 씻으라”)은 자기 효능감이나 행동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둔 전략에 비해서 행동 예측력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다른 심리 변수들에 비해서 변산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지식, 지각된 취약성, 주관적 규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接種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Allen et al., 2009)에서도 지각된 취약성은 주관적 규범에 비해 예방接種 행동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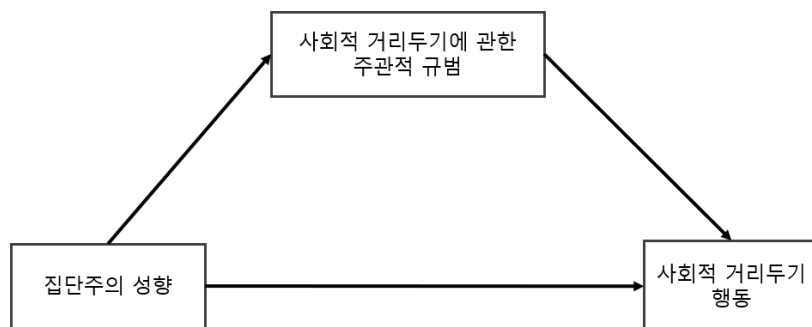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접종 계획 여부에 있어서 예측력이 낮았다.

이처럼 질병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이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영향력이 없거나 주관적 규범에 비해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취약성과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연구 모형에서 지각된 취약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9세 ~ 만 59세 이하)을 대상으로 on-lin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조사전문업체에서 모집하였다. 참가자 표본에 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 시기였던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문항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지속되어온 최근 2주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 후 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조사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참가수당을 지급받았

표 1. 참가자 인구 통계 정보 (N = 440)

구분	사례수 (n)	백분율 (%)
성별		
남성	219	49.8
여성	221	50.2
연령		
20대	114	25.9
30대	108	24.5
40대	106	24.1
50대	112	25.5
거주지역		
서울	128	29.1
인천/경기	122	27.7
대구/경북	51	11.6
부산/경남	51	11.6
광주/전라	29	6.6
대전/충청	43	9.8
강원/제주	16	3.6

다.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총 445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5명의 자료를 제외한 44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예측변수: 집단주의 성향,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취약성

참가자들의 문화적 지향성은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의 핵심성분에 해당하는 가치 지향성과 자기-개념을 포함하는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개인/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달라지지 않는다”, 참조: Brewer & Chen, 2007; Choi, 2019; Kağitçibaşı, 1997; Kashima et al., 1995;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참가자들은 양극에 제시된 상반된 두 진술문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 = 다소 동의에서 3 = 매우 동의 사이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단일차원으로 가정하여 개인이 지니는 문화적 지향성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상대적 우세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극척도를 사용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양문화권과 비서구권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단일차원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메타분석 결과(Taras et al., 2014)와 한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양극척도 타당화 연구(Kim & Cho, 2011)를 기반으로 한다. 참가자들의 점수는 7점 척도로 변환하여(예: 개인주의 관련 진술문에 ‘매우 동의’로 응답했을 경우 1점,

집단주의 관련 진술문에 ‘매우 동의’로 응답했을 경우 7점),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하도록 점수를 변환하고 분석에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 = .85$).

주관적 규범은 특정 맥락에서 중요 타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측정하였다(Ajzen, 1991, 2006; Cialdini & Trost, 1998).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은 “귀하의 주변 사람들은 귀하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귀하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귀하를 비난할 것 같습니까”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한 주관적 규범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r = .80, p < .01$).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은 참가자 본인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본인의 삶이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을 묻는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없다 ~ 6점 = 매우 높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76$).

종속변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하는 총 10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예: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주 보지 않고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한다”). 참가자들은 해당 진술문이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온 최근 2주 간의 본인 행동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6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8$).

인구통계변수

질문지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Adler와 Stewart(2007)의 방식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사다리를 제시한 후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사다리대(1~10층)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 과

분석절차

자료분석은 SPSS 22.0과 Process macro v.3.5 (Hayes, 2017)를 활용하였다. 먼저,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조사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고,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더해, 지각된 취약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조절된 매개모형(Model 14)과 두 가지 대안모형(Model 1, 4)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

표 2. 조사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1)	(2)	(3)	(4)	(5)	(6)	(7)
성별 (1)	-	.00	.01	.12*	.05	-.03	.25**
연령 (2)		-	.06	.09	.03	.03	.18**
사회경제적 지위 (3)			-	-.12*	.03	-.22*	-.02
집단주의 성향 (4)				-	.12*	.16**	.08
주관적 규범 (5)					-	.14**	.38**
코로나19 취약성 지각 (6)						-	.11*
사회적 거리두기 (7)							-
평균	-	39.00	4.92	4.37	4.69	3.72	4.67
표준편차	-	10.89	1.67	0.91	0.88	0.98	0.76
왜도	-	.06	-.17	-.44	-.41	-.32	-.26
첨도	-	-1.17	.23	.44	.00	.15	-.14

* $p < .05$, ** $p < .01$

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최소 -.44에서 최대 .06, 첨도는 최소 -1.17에서 최대 .44였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 절대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아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Kline, 2005). 본 연구의 예상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성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은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전염병 관련 우려가 크다는 선행 연구(예: Brown et al., 2014)와도 일관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에도 예상대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인구통계변수들의 경우, 여성은 집단주의 성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남성 = 1, 여성 = 2), 연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집단주의 성향, 코로나19 취약성 지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 점수는 평균 4.69점으로 나타나서 척도의 중간값(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439) = 28.49, p < .001$. 따라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규범을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가설을 검증하였다(10,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 결과,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 = 0.03, p = .453$),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적으로 예측했다($B = 0.32, p < .001$). 매개가설 검증이 주목적인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경로가 유의함을 전제할 필요가 없으므로(Hayes, 2009; Rucker, Preacher, Tormala, & Petty, 2011; 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경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했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리두



그림 2.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표 3.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SE	95% 신뢰구간(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	UL
집단주의 성향 → 주관적 규범	.11	.05	.02	.20
주관적 규범 → 사회적 거리두기	.32	.04	.25	.40
집단주의 성향 → 사회적 거리두기	.03	.04	-.04	.10
집단주의 성향 → 주관적 규범 → 사회적 거리두기	.04	.02	.01	.07

LL: 95% 신뢰구간 하한계; UL: 95% 신뢰구간 상한계

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지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B = 0.04$, 95% CI [.01, .07].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한 매개모형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B = 0.02$, $p = .567$),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적으로 예측했다($B = 0.55$, $p < .001$).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고($B = 0.34$, $p = .053$), 주관적 규범과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6$, $p = .081$). 즉, 코로나19에 대해 지각된 취약성에 관계없이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거리두기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가설로 상정한 매개모형 외에 가능한 두 가지 대안모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관적 규범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계를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조절할 것이라는 모형(대안모형 1)을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10,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주관적 규범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다($B = -0.01$, $p = .059$). 그리고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취약성이 각각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병렬 이중 매개 모형(대안모형 2)를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0,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경로는 유의했지만, $B = 0.04$, 95% CI [.01, .07], 지각된 취약성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95% CI [-.01, .0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이 촉진된다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로 설정한 매개모형을 지지하는 증거를 관찰하였으며, 이 결과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해 얼마나 취약하다고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관찰되었다. 집단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집단주의와 효과적인 행동면역체계의 관련성을 추론하는 관점들(Cashdan & Steele, 2013; Fincher et al., 2008)과 수렴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개인주의-집단주의 연구는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전염병 시기에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기제를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규범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문화비교심리 및 문화심리 분야에서 자주 관찰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 민감성이 개인과 집단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개관은 Chiu & Hong, 2007; Heine, 2010 참조). 이러한 주장이 과단순화의 우려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의(Lee & Choi, 2020; Smith, 2011)와는 별개로, 최소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회적 규범에 관한 민감성은 억제나 탈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권장될 수 있는 심리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경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지각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전염병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취약성에 관계없이 큰 효과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경과에 따라서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흥미로운 변수들 가운데 하나는 타인의 취약성에 관한 공감이다(김정식, 김완석, 2007).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서구에서 보고된 연구(Coroiu et al., 2020)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주거하는 타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개인의 취약성 지각과 달리, 코로나19 관련 타인의 취약성에 대한 지각은 대인 및 사회적 관련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본 연구는 전염병 유행시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지각하는 규범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물음을 제기한다. 물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주관적 규범에 민감하고 행위 실행에 있어서 규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Triandis, 1995).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규범 민감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시책과 언론, 지자체의 홍보와 계몽 등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지각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규범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집단에서 다수에 대한 무조건적 동조)에는, 그러한 규범에 대한 민감성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주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수라는 조사결과(한국리서치,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사회적 규범과 그렇지 않은 사회적 규범을 조사하고, 이러한 규범의 차이가 다양한 대인 및 사회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부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저항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었음을 고려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더해 문화의 느슨함-엄격함(looseness-tightness, Gelfand et al., 2011)이나 현재지향-미래지향(Hofstede, 2011)과 같은 국가 수준 문화차원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성별이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계변수들의 조합에 따른 차이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던 시점과 달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집단규범(예: 백신 불신 집단 대신 신뢰 집단)에 대한 동조 역시 개인의 예방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예방약에 의한 감염차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 규범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보임으로써 전염병의 시기에 효과적인 행동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 점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나 홍보, 국민계몽 등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이론적 및 현실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 예측변수와 준거변수를 질문지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공통변량은 16%에 불과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Podsakoff, MacKenzie, & Podsakoff, 2012),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는 종단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측정했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같은 반응왜곡 문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강하게 작동했다면 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유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식, 김완석. (2007). 이타행동의 유발요인으로서 정서전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 55-76.
- 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대학생의 폭음

-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지각된 음주기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 63-79.
- 한국리서치 (2020). [코로나19] 15차 인식조사 (상황 인식, 일상생활 변화 등). <https://hrcopinion.co.kr/archives/16413>에서 2020, 9, 09 인출.
- Adler, N., & Stewart, J. (2007). *The MacArthur Sca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retrieved from <https://macses.ucsf.edu/research/psychosocial/subjective.php>
- Ahn, J.-M., Koo, D.-M., & Chang, H.-S. (2012). Different impacts of normative influences on pro-environmental purchasing behavior explained b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22, 163-18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7-58.
- Ajzen, I. (2006). *Constructing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Questionnair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PDF].
- Allen, J. D., Mohllajee, A. P., Shelton, R. C., Othus, M. K., Fontenot, H. B., & Hanna, R. (2009). Stage of adoption of the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among college women. *Preventive Medicine*, 48, 420-425.
- Bagozzi, R. P., Wong, N., Abe, S., & Bergami, M. (2000). Cultural and situational contingencies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pplication to fast food restaurant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92, 97-106.
- Berry, J. W., Poortinga, Y. H., Pandey, J., Segall, M. H., & Kâğıtçıbaşı, Ç. (1997).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ory and method* (Vol. 1). John Berry.
- Biddlestone, M., Green, R., & Douglas, K. (2020). Cultural orientation, powerlessness,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and intentions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663-673.
- Blue, C. L. (2007). Does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dentify diabetes related cognitions for intention to be physically active and eat a healthy diet? *Public Health Nursing*, 24, 141-150.
- Brewer, M. B. (2006). Bringing culture to the table. In Y.-R. Chen (Ed.), *Research on managing groups and teams: Vol. 9. National culture and groups* (pp. 353-365). Emerald Group Publishing.
- Brewer, M. B., & Chen, Y.-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 133-151.
- Brown, S. G., Ikeuchi, R. K., & Lucas III, D. R. (2014). Collectivism/individu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immunity. *Health Psychology and Behavioral Medicine: An Open Access Journal*, 2, 653-664.
- Carpenter, S. (2000). Effects of cultural tightness and collectivism on self-concept and causal attributions. *Cross-Cultural Research*, 34, 38-56.
- Cashdan, E., & Steele, M. (2013). Pathogen prevalence, group bias, and collectivism in the

- standard cross-cultural sample. *Human Nature*, 24, 59-75.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November 17). *Social distancing*.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social-distancing.html>
- Champion, V. L., & Skinner, C. S. (2008). The health belief model. In K. Glanz, B. K. Rimer & K. Viswanath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pp. 45-65). Jossey-Bass.
- Chiu, C.-Y., & Hong, Y.-Y. (2007). Cultural processes: Basic principles.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785-806). Guilford Press.
- Choi, H.-S. (2019, July). *A new model of IND-COL that suggests us what to do within and between groups*. Presidential address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Taiwan.
- Cialdini, R. B. (2001).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4th ed.). Allyn & Bacon.
-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91-621.
- Cialdini, R. B., & Trost, M. R. (1998). Social influence: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151-192). McGraw-Hill.
- Coroiu, A., Moran, C., Campbell, T., & Geller, A. C. (2020). Barriers and facilitators of adherence to social distancing recommendations during COVID-19 among a large international sample of adults. *PLoS ONE*, 15, Article e0239795.
- De Coninck, D., d'Haenens, L., & Mattheijs, K. (2020). Perceived vulnerability to disease and attitudes towards public health measures: COVID-19 in Flanders, Belgiu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Article 110220.
- Fincher, C. L., Thornhill, R., Murray, D. R., & Schaller, M. (2008). Pathogen prevalence predicts human cross-cultural variability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5, 1279-1285.
- Finlay, K. A., Trafimow, D., & Jones, D. (1997). Predicting health behaviors from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Between-subjects and within-subjects analy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2015-2031.
- Finlay, K. A., Trafimow, D., & Moroi, E. (1999).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norms on intentions to perform health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381-2393.
- Fischer, R. (2014). What values can (and cannot) tell us about individuals, society, and culture. In M. J. Gelfand, C.-Y. Chiu, & Y.-Y. Hong (Eds.), *Advances in culture and psychology* (Vol. 4, pp.218-272).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1979). A theory of reasoned action: Some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7, 65-116.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915-981).

- McGraw-Hill.
- Gelfand, M. J., Bhawuk, D. P., Nishi, L. H., & Bechtold, D. J. (200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R. J. House, P. J. Hanges, M. Javidan, P. W. Dorfman & V. Gupta (Eds.),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pp. 437-512). Sage.
- Gelfand, M. J., Erez, M., & Aycan, Z. (2007). Cross-cultural organization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79-514.
- Gelfand, M. J., Jackson, J. C., Pan, X., Nau, D., Pieper, D., Denison, E., ... Wang, 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tightness-looseness and COVID-19 cases and deaths: a global analysis. *The Lancet Planetary Health*, 5, e135-e144.
- Gelfand, M. J., Raver, J. L., Nishii, L., Leslie, L. M., Lun, J., Lim, B. C., ... Yamaguchi, S. (2011).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cultures: A 33-nation study. *Science*, 332, 1100-1104.
- Gilles, I., Bangerter, A., Clémence, A., Green, E. G., Krings, F., Staerklé, C., & Wagner-Egger, P. (2011). Trust in medical organizations predicts pandemic (H1N1) 2009 vaccination behavior and perceived efficacy of protection measures in the Swiss public.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26, 203-210.
- Green, E. G., Deschamps, J. C., & Páez, D. (2005). Vari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ithin and between 20 countries: A typologic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 321-339.
- Greene, K., Hale, J. L., & Rubin, D. L. (1997). A test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the context of condom use and AIDS. *Communication Reports*, 10, 21-33.
- Greenstone, M., Nigam, V. (2020). *Does social distancing matter?* [Unpublished manuscript]. Becker Friedman Institute for Economic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 408-420.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ine, S. J. (2010). Cultural psychology.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1423-1464). Wiley.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 Article 8.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 McGraw-Hill.
- Hong, Y.-Y., Morris, M. W., Chiu, C.-Y., & BenetMartí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Huynh T. L. D. (2020) Does culture matter social distancing under the COVID-19 pandemic? *Safety Science*, 130, Article 104872.

- Im, H., & Chen, C. (2020). *Social distancing around the globe: Cultural correlates of reduced mobility* [Preprint]. PsyArXiv.
- Jefferson, T., Del Mar, C. B., Dooley, L., Ferroni, E., Al-Ansary, L. A., Bawazeer, G. A., ... Conly, J. M. (2011). Physical interventions to interrupt or reduce the spread of respiratory virus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1, Article CD006207.
- Kağitçibaşı Ç.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Ç. Kağitçibaşı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49). Allyn & Bacon.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im, K., & Cho, B. (2011). Development of an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revisited: A Korean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108, 393-401.
-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Lee, H., & Choi, H.-S. (2020). Independent self-concept promotes group creativity in a collectivistic culture context only when the group norm supports collectivism.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 Makhanova, A., & Shepherd, M. A. (2020). Behavioral immune system linked to responses to the threat of COVID-19.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7, Article 110221.
- Montano, D. E., & Taplin, S. H. (1991). A test of an expa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predict mammography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32, 733-741.
- Murray, D. R., Trudeau, R., & Schaller, M. (2011). On the origins of cultural differences in conformity: Four tests of the pathogen prevalence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318-329.
- Nikolaev, B., Boudreaux, C., & Salahodjaev, R. (2017). Are individualistic societies less equal? Evidence from the parasite stress theory of valu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8, 30-49.
- Noar, S. M., Benac, C. N., & Harris, M. S. (2007). Does tailoring matter? Meta-analytic review of tailored print health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3, 673-693.
- Oyserman, D. (2011).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2, 164-214.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Oyserman, D., & Lee, S. W. S.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 311-342.
- Pan, A., Liu, L., Wang, C., Guo, H., Hao, X., Wang, Q., Huang, J., He, N., Yu, H., Lin,

- X., Wei, S., & Wu, T. (2020).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ith the epidemiology of the COVID-19 outbreak in Wuhan, China. *JAMA*, 323, 1915-1923.
- Pechmann, C., Zhao, G., Goldberg, M. E., & Reibling, E. T. (2003). What to convey in antismoking advertisements for adolescents: The use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identify effective message themes. *Journal of Marketing*, 67, 1-18.
- Pitlik, H., & Rode, M. (2017). Individualistic values, institutional trust, and interventionist attitudes.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13, 575-598.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 Podsakoff, N. P. (2012). Sources of method bias i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control i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 539-569.
- Rogers, R.W. (1983).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J. Cacioppo, & R. Petty, (Eds), *Social psychophysiology* (pp. 153-177). Guilford Press.
- Rucker, D. D., Preacher, K. J., Tormala, Z. L., & Petty, R. E. (2011). Mediation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Current practices and new recommend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 359-371.
- Schwartz, S. H. (2011). Values: Cultural and individual. In F. J. R. van de Vijver, A. Chasiotis, & S. M. Breugelmans (Eds.), *Fundamental ques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463-4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B. (2011).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249-265). Springer.
- Stasson, M. & Fishbein, M. (1990).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risk and preventive action: A within-subject analysis of perceived driving risk and intentions to wear seatbe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1541-1557.
- Sreen, N., Purbey, S., & Sadarangani, P. (2018). Impact of culture, behavior and gender on green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41, 177-189.
- Taras, V., Sarala, R., Muchinsky, P., Kimmelmeier, M., Singelis, T. M., Avsec, A., ... Sinclair, H. C. (2014). Opposite ends of the same stick? Multi-method test of the dimensionalit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 213-245.
- Taras, V., Steel, P., & Kirkman, B. L. (2016). Does country equate with culture? Beyond geography in the search for cultural boundar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6, 455-487.
- Thornhill, R., Fincher, C. L., Murray, D. R., & Schaller, M. (2010). Zoonotic and

- non-zoonotic diseases in relation to human personality and societal values: Support for the parasite-stress model. *Evolutionary Psychology*, 8, 151-169.
- Thu, T. P. B., Ngoc, P. N. H., & Hai, N. M. (2020). Effect of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on the spread of COVID-19 in 10 highly infected countrie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42, Article 14043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 Gelfand, M. J. (2012).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 498-520). Sage Publications.
- Trongmateerut, P., & Sweeney, J. T. (2012). The influence of subjective norms on whistleblowing: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2, 437-451.
- Van Bavel, J.J., Baicker, K., Boggio, P.S., Capraro, V., Cichocka, A., Cikara, M., ... Willer, R.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 460-471.
- Van der Plight, J. (1998). Perceived risk and vulnerability as predictors of precautionary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 1-14.
- Xie, K., Liang, B., Dulebenets, M. A., & Mei, Y. (2020).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n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 Article 6256.
- Ybarra, O., & Trafimow, D. (1998). How priming the private self or collective self affects the relative weights of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362-370.

논문 투고일 : 2021. 04. 28

1 차 심사일 : 2021. 05. 09

게재 확정일 : 2021. 07. 04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Collectivistic Orientation and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imin Han

Hoon-Seok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the subjective norm about social dista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collectivistic orientation and their social distancing behavior during the early COVID-19 crisis in Korea. A total of 445 South Korean adults residing in Korea participated in a survey during which level 2 to 2.5 prevention policies were being enforced.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at collectivism positively predicted the perceptions of subjective norm that supports social distancing, which in turn predicted positively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social distancing as prescrib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result emerged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perception of personal vulnerability to COVID-19.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regarding the link betwee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along with the role of social distancing in effectively curbing the spread of corona virus during the pandemic.

Key words : COVID-19, collectivistic orientation, social distancing, subjective norm